

희망찬 2014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신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25살 청년이 된 본부는 지구촌 빈곤퇴치와 사회정의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사업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또 지구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띠앗누리 프로그램과 국제자원활동가 파견 프로그램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운동,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치료비 지원, 장기이식대기자·무료개안 진료비 지원 사업과 더불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며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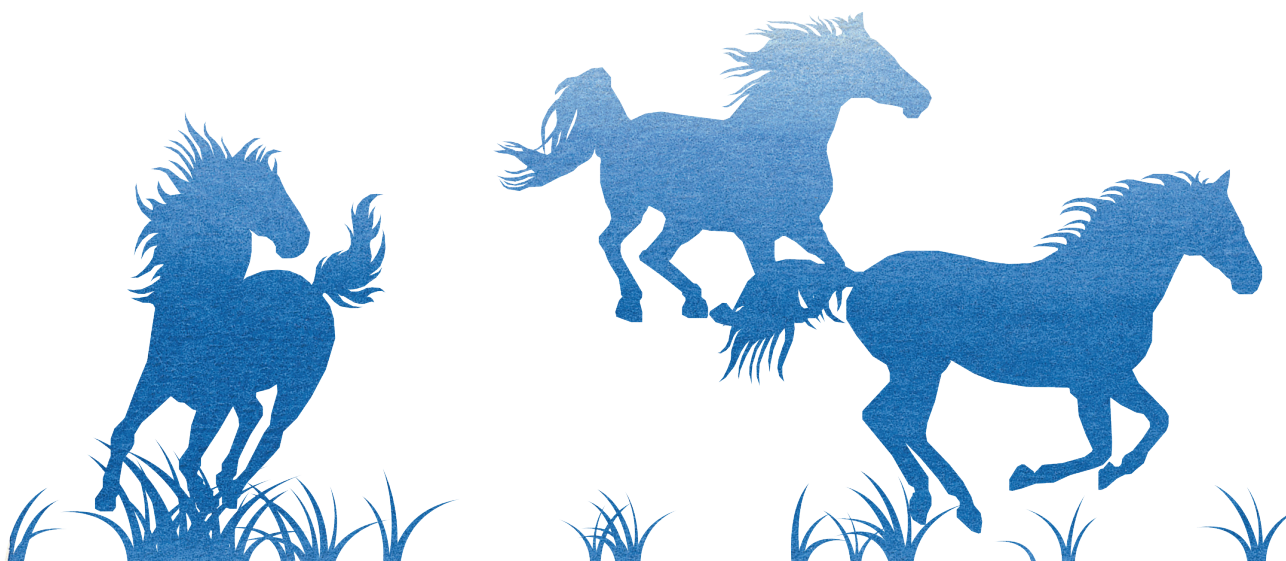
지난 한해 신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룩되기를 꿈꾸며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행복한 한 해 보내고 싶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정성환 신부

따뜻하고 희망찬 일, 좋은 일들이 많은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손수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촌 빈곤퇴치
연말연시 모금캠페인

아주 특별한 손수건 캠페인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의 눈물을 사랑으로 닦아주는 캠페인입니다.

가난과 질병속에 있는 아이들의 인생에
2014년 1월, 여러분이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 변화를 가져오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캄보디아에서 스레이 Srey



저는 캄보디아 오우(Ou)마을에 사는 스레이(Srey)입니다. 저는 올해 34살로, 어머니와,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딸아이 릭(Leak)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이 3살이 되던 무렵 심한 복통과 고열에 시달렸고 그 이후로 우리 딸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단지 성장이 느릴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커가면서 아이는 매일같이 울부짖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면 저 역시 매일 함께 울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전생에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이생에서 장애로 고통을 받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아이에게 손가락질하였고 그것이 우리가족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아이는 동네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에 결국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지원으로 딸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느낌을 조금씩 표현하다가 이제는 바느질도 제법 한답니다. 저는 양계 기술을 배워 집 앞에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족은 이제 몰라보게 달라졌답니다. 든든한 우리 가족과 나아진 환경 덕분에 매일 매일이 행복합니다. 우리가족에 새로운 희망이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절대 빈곤 속에 희망을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짓고, 교복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손수건을 통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사랑으로 닦아주고, 손을 건네 일으켜주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흔들어 주자는 '아주 특별한 손수건'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아주 특별한 손수건에 참여하는 방법



- ★ 모금 기간 2013. 12. 15 ~ 2014. 02. 28
- ★ 후원금 1계좌에 3만원 (1인당 2 ~ 3계좌 이상도 가능합니다.)
- ★ 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684-077777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 연락처 02 727 2267

입금 후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참여하신 분들께 캄보디아 반티프리업 장애인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손수건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반티프리업은 전쟁 및 지뢰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인을 위해 직업기술교육 및 전인적 자립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 아주 특별한 손수건 캠페인은 2013. 12. 15 ~ 2014. 2. 28까지 진행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연말연시 모금캠페인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기 천사의 나눔 이야기

2008년 12월 25일 00시 03분 크리스마스 보이가 태어났습니다. 종교가 없던 저희 부부에게도 그 해 크리스마스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50일경이 지난 즈음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명동성당에 생긴 기나긴 추모행렬과 추기경님이 생전에 행하셨던 업적들을 접하면서 그분께서 남긴 소중한 마음이 가슴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내밀어 주신 손에 이끌려 2009년 3월 교리공부를 신청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온 아이, 주위를 둘러 볼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례명도 추기경님을 따라 스테파노라고 지었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에 돌잔치보다는 나눔을 생각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주보에서 사랑 나눔의 시작 '생애첫기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하의 생일에 찾아간 본부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눔을 시작하는 성하가 더 대단하다며 말씀하시는 신부님, 수녀님의 인자하신 웃음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성하 통장으로 적금을 넣어서 크리스마스 무렵 명동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나눔을 하는 일이 연례행사가 된 우리 가족. 어느덧 다섯 번째 나눔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벽에 늘어가는 성하 성장사진 액자들을 보며 온 가족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추기경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모 미카엘라
정성하 스테파노 어머니

내 아이에게 주는 첫 선물 '생애첫기부'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아프리카·아시아의 가난한 친구들이나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생애첫기부 신청문의

02 727 2267

후원안내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우리은행 1005-684-077777
·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 우리은행 454-005324-13-044



※ '기념일기부'를 통해 생일이나 입학과 졸업, 취업 등 생애 뜻깊은 날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부 사무국으로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면 기념액자를 만들어 드리고 감사장을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선물과 감사장을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